



## 대한민국 내수활성화 특급엔진 K-관광 “많이 오게, 많이 쓰게”

- 4~5월 일 골든위크·중 노동절을 인바운드 관광객 선점 호기로 삼아 맞춤형 공략
- 대체불가능한 K-컬처를 무기로 ‘2023 한국방문의 해’ 캠페인 적극 전개
- 숙박·놀이공원 할인쿠폰, MZ 세대 워라밸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, 6월 여행가는 달 등 국내관광 붐업
- 대통령 주재 ‘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’ 정부합동 내수대책 발표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3월 29일(수)에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-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‘많이 오게’, 더 ‘많이 쓰게’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.

박보균 장관은 “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 ‘K-컬처’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. 지역별,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,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. K-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제1시장 일본은 세대 맞춤형 마케팅, 중국은 ‘한국 다시 가자’ 캠페인으로 공세적 유치, 미국유럽동남아 등 지역별 전략도 추진

4월에는 일본 골든위크(4. 29.~5. 7.)를 겨냥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. K-뷰티, K-패션, K-미식(구르메) 등 일본 MZ 세대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실제 한국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‘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(同行) 프로젝트’를 가동한다. 한편 올해는 한류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

드라마 <겨울연가>가 일본에 방영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, 중장년 원조 한류팬을 겨냥하여 ‘겨울연가 추억 재구성’ 캠페인도 추진한다.

중국 노동절(4. 29.~5. 3.) 계기로 씽씽이가 큰 중국 관광객 수요를 공략한다. 3월 한-중 항공편 증편 및 페리 재개 계기, 중국 온라인여행사(씨트립 등)와 공동으로 ‘한국 다시 가자’ 캠페인을 진행한다. 중국 유력 모바일 페이사와 함께 한국여행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쇼핑 인센티브 마케팅도 펼친다. 5월에는 베이징에서 K-관광 로드쇼를 개최, 현지에서 중국인의 한국방문 심리를 자극할 예정이다.

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미국·유럽의 원거리 여행자를 유치하고, 파리·런던에서 ‘테이스트 코리아’를 개최하는 등 K-미식도 각인시킨다.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도 국가별 선호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추진한다.

**경쟁력 있는 로컬콘텐츠와 K-컬처 메가이벤트로 한국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**

청와대와 경복궁, 북촌·서촌, 북악산 K-클라이밍을 엮어 청와대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고, K-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. 또한 먹거리, 볼거리가 가득한 10개의 전통시장(K-마켓)을 엄선하여 지역명사 홍보대사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한편 부산드림콘서트(5. 27.), 롯데면세점 패밀리콘서트(6. 16.~18.), 코리아서머(뷰티)세일(7월) 등 K-컬처 연계 메가 이벤트로 전 세계 K-컬처 팬덤을 한국 방문수요로 전환한다.

K-컬처의 프리미엄을 더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·국제회의·럭셔리관광도 추진한다.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대상 국가를 연계한 ‘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’를 마련해 의료 관광에 힘을 신는다. 박물관, 공연, 음식을 패키지화한 ‘프라이빗 특별문화체험’ 등 럭셔리관광 마케팅도 추진한다.

**숙박할인쿠폰 100만장, 놀이공원할인쿠폰 18만장, 해외여행 수요 국내 전환**

‘쿠폰받고 여행가자’ 이벤트도 펼쳐진다. 숙박시설 3만 원 할인권 100만 장과 놀이공원(테마파크, 워터파크 등) 이용 1만 원 할인권 18만 장을 제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한다.

중소·중견기업이 10만 원,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수요에 따라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까지 확대해 MZ 세대 워라벨\* 향상을 돕는다. 교통·숙박·레저 등 전방위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‘6월 여행가는 달’을 추진하고, 매월 마지막 주말을 ‘여행이 있는 주말’로 지정하여 지자체와 연계해 주말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여행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

\* 워라벨(work-life balance) :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약어

문체부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, 대체불가능한 K-컬처를 탑재한 K-관광 정책을 짜임새있고 정교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관광정책국<br>관광정책과     | 책임자 | 과장  | 이정현 (044-203-2811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서은주 (044-203-2812) |
| <공동>          | 관광산업정책관<br>관광산업정책과 | 책임자 | 과장  | 권수진 (044-203-2861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조원정 (044-203-2888) |

국민과 함께하는  
**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**

대한민국  
**지정브리핑**

